

남영우 차장, 「2026 새만금 청정에너지 박람회」 참석 “새만금을 청정에너지 · 미래산업 중심지로”

- 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9월 1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(GSCO)에서 개최된 ‘2026 새만금 청정에너지 박람회’ 개막식에 참석하여, 축사를 통해 새만금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,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.
-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, 국내·외 청정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.
 - 전 세계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,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박람회는 새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·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.
- 남영우 차장은 “새만금은 드넓은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 등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와 미래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.”라면서, “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새만금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2026. 9. 17.

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